

## 洪錫謨의 연행과 淸 文人の 만남, 그리고 북경 유리창

김 동 건\*

###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V. 만남의 장소, 북경 유리창 |
| II. 홍석모가 만난 淸 文人     | V. 맺음말             |
| III. 詩 수창을 통한 知音의 교류 |                    |

### < 국문 초록 >

洪錫謨는 부친인 洪羲俊이 洪良浩를 배행하여 연행을 다녀온 사례를 그대로 이어받은 인물로, 풍산 홍씨가 중에서 비교적 많은 淸 文인과 사귀었다. 淸 문인들은 內閣中書 계열의 벼슬이 많았고 홍석모와 동갑에다 고향을 떠나온 처지 등이 비슷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만남은 짧았지만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 홍양호의 손자 홍석모가, 예전 연행과 같이 아버지 홍희준을 모시고 온다는 것은 연경 선비들에게도 다시 있기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그들도 적극적으로 만남에 응해주었다.

이들이 수창한 시를 분석하여 교유의 양상과 감정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대화가 담긴 필담은 존재하지 않으나, 시를 통해서도 그들의 교유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상대방의 인품을 높이 여기는 내용의 시를 和韻의 형식으로 지었다. 상대방의 字號를 이용한 장난스러운 시도 있는데 그만큼 그들의 허물없는 許與를 알 수 있다. 헤어지기 전에 수창한 시에서는 이별의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연구원 / [sky200106@hanmail.net](mailto:sky200106@hanmail.net)

아쉬움과 그리움 등이 절절히 흐르고 있다.

이들이 만난 장소는, 북경 宣武門 밖 琉璃廠 일대였다. 이곳은 紀昀의 손자 紀樹蓀의 저택을 비롯하여 홍석모가 만난 인물이 주로 거주하였던 곳이다. 조선 사람을 만나 교류하기를 좋아하는 인물도 있다는 점에서 유리창은 조선 사행과 중국 선비들 사이에 교류의 장이 열렸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洪錫謨, 北京 琉璃廠, 紀樹蓀, 戴嘉會, 熊昂碧, 張祥河, 蔣鉞, 曹江, 陳瑾光, 陳延恩

## I. 머리말

북경 유리창은 18세기 이후 朝淸 문인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일어난 곳이다. 유리창은 원래 유리와 벽돌을 굽던 가마가 많은 지역이었다. 청대에는 각종 문방구와 골동품, 서적과 서화가 매매되는 시장이 형성되었고,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 중심이자 서적 출판과 유통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청 조정은 『四庫全書』의 편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에 종사하던 학자들 대부분이 宣武門 남쪽의 회관과 유리창 일대에 거주하였다. 청나라의 이름난 학자 옹방강, 기윤, 왕사정 등이 이곳에 살았고 많은 예술가들도 모여들었다. 또한 과거를 보기 위해 중국 각지에서 올라온 선비들도 유리창 일대에 머물렀다. 그들은 이곳에서 과거시험을 준비하였는데, 필요한 책을 얻거나 잠시 생계를 위한 일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sup>1)</sup>

이곳에서 이루어진 朝淸 문인의 교류는 여러 양상을 띠는데, 19세기에 들어오면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한다. 특히 홍양호·홍희준·홍석모·홍경모로 이어지는 홍양호가의 연행은 기존에 없던 특이한 사례이다. 이들은三代에 걸쳐 연행록을 남기는 동시에, 청대 문인 紀昀(1724~1805) 및 그의 손자 紀樹蓀(?~?), 그리고 陳用光(1768~1835)와 그의 아우 陳瑾光(?~?)·

1) 박수밀, 「북경 琉璃廠과 지식인 교류의 세 층위」, 『한국언어문화』 43, 2010.

從孫 陳延恩(?~?) 등과 三代에 걸친 神交를 맺는다. 홍양호는 연행을 통해 燕京學團을 주도하던 紀昀과의 학술 교류를 통해 淸朝 문화를 접하고 자신들의 사유와 저술의 자양분으로 삼았다. 이후 耳溪의 아들과 손자 또한 연행과 서신의 교환을 통해 교류를 지속하였다.

본고는 1826년 자제군관으로 연행한 洪錫謨(1781~1850)의 『遊燕藁』에 주목하였다.<sup>2)</sup> 『遊燕藁』는 홍석모가 남긴 연행록으로 天地人 세 권으로 구성되었다. 5언 고시 6수, 7언 고시 12수, 5언 율시 37수, 7언 율시 97수, 5언 절구 8수, 6언 절구 1수, 7언 절구 305수, 그리고 청나라 사람들의 시 29수 등 모두 502수가 실려 있다.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시제에 날짜를 기록하여 창작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sup>3)</sup>

홍석모와 청나라 문인들이 주고받은 시에는 충실한 주석이 삽입되어 있다.<sup>4)</sup> 상대방의 이름, 자호 등의 인적사항과 고향, 관직과 담당업무, 가족관계, 집의 위치, 만나게 된 경위 등이 정리되었다. 또한 수창한 중국 문인의 原韻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이들의 교류 양상과 심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sup>5)</sup> 중국 문인도 시에 주석을 달아 이해를 돕고자 했다는 점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도 엿보인다.

홍석모가 연경에 머무른 1개월 중에서 열흘 남짓한 기간 사이에 청 문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들이 쌓은 우정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들은 같은 韻과 같은 마음으로 시를 수창하였고 先代에 이뤄진 만남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이어받아 확장시키고자 노력했다.

- 
- 2) 당시 정사는 홍석모의 부친 洪羲俊이었고, 부사는 申在植, 서장관은 鄭禮容이며, 부사의 자제군관으로 洪良厚도 참여하였다.
  - 3) 홍석모 저, 이관성 역, 「유연고 해제」, 『달빛 아래 연경에서 노닐며』, 문진, 2010.
  - 4) 홍석모는 詩題나 本文 뒤에 細註를 달아 작품과 관련된 일정, 상황, 역사적 사건, 지리, 풍물 등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당시 자신의 기분을 나타내기도 했다. 주석은 매우 자세하여 시를 훑힐 뒤편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례도 있다.
  - 5) 이군선, 「陶厓 홍석모의 『游燕藁』」, 『한문학보』 11집, 우리한문학회, 2004.

## Ⅱ. 홍석모가 만난 淸 文人

2월 2일 陳登之가 찾아와서 이별하며 읊시 한 수를 지어주었다.

白雪樓高玉樹春	높은 白雪樓에 아름다운 나무는 봄인데,
洪厓子遇希夷陳	洪厓子가 希夷의 陳登之를 만났네.
小華能得中華制	소중화인 조선이 중화의 제도를 얻었으니,
我輩本同君輩人	우리들은 본래 그대와 같은 사람.
縱有杯心情未了	비록 흥금을 술잔에 따라도 정은 다하지 않으니,
徒憑筆舌氣難伸	한갓 筆舌에 의지한들 기운은 펼쳐내기 어렵네.
忘年好作金蘭契	나이 잊은 친구는 금란계가 될 수 있으니
漢晉風流始見眞	漢과 晉의 참된 유풍을 비로소 볼 수 있네.)

홍석모는 1827년 2월 2일 모든 일정이 끝나, 燕京을 떠날 기일이 임박했다. 이 날 관소로 陳登之가 찾아왔기에 시를 지어주었는데, 중국에서 만난 문인들에 대한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胸襟을 터놓고 주고받은 술잔과 筆談으로 이루어진 대화로 이들 사이에 일종의 동류의식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이들은 서로를 知音이라 여기게 되었다. 홍석모는 연행을 통해 여러 인물을 만나고자 노력했으며, 중국 인물들도 적극적으로 응해주었다. 그는 연행 중에 많은 중국 선비를 만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그는 기수유와 대가회를 만나 기존의 神交를 이어가는 한편, 인맥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연경에서 만난 인물은 賈漢, 紀樹蕪, 戴嘉會, 劉玟, 陸繼輅, 徐松, 熊昂碧, 張祥河, 張深, 蔣鉞, 曹江, 陳孚恩, 陳石土, 陳延恩으로 총 14인의 인물과 교류하였다. 다양한 인연으로 이루어진 만남으로 8차에 걸친 모임을 가졌으며 이는 각 문인의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6) 洪錫謨, 『游燕藁』, <初二日陳登之來訪 叙別書贈一律>

<표1> 북경 유리창에서 이뤄진 홍석모와 중국 문인의 교류7)

일시	장소	위치	참여자	受與	수장시
1월 10일	紀昀택	宣武門 밖 虎坊橋 동쪽머리	紀樹葵	錫←기수유	附和詩 茂林第紀樹葵拜草
				錫→기수유	初三日訪紀樹葵書贈一律
1월 21일	張祥河택	宣武門 밖 春樹胡同	熊昂碧 張祥河 曹江	錫→옹앙벽	贈熊雲客昂碧
				錫←장상하	附原韻 喜陶厓來訪走贈東吳張祥河
				錫→장상하	二十一日詩贈張舍人祥河宅走 和一絕
				錫→장상하	奉寄張詩昫
				錫→조강	奉贈曹玉水中書江
				錫←조강	附和詩 奉酬陶厓先生玉水弟江
1월 25일	戴嘉會택	宣武門 밖 南橫街 官房	戴嘉會 陳延恩	錫→대가희	二十五日戴雲莊嘉會宅書贈一 絕
				錫→진연은	奉贈陳登之延恩
				錫←진연은	附和詩 四疊原韻奉答新城陳延恩
1월 27일	張祥河택	宣武門 밖 春樹胡同	張祥河 徐松 陸繼輅 曹江	錫←장상하	附原韻 煮筍爲陶厓先生作別口占
				錫→참여자	二十七日詩昫宅餞席 與曹玉水徐星伯約會 陸祁孫追到共賦
				錫←육계로	和詩 依詩昫韻呈陶翁 其一
				錫←조강	和詩 依詩昫韻呈陶翁 其二
				錫←徐松	附和詩 詩昫座上答陶厓同庚之作
				錫→徐松	贈徐星伯即席要和
1월 29일	陳延恩택	宣武門 밖 서쪽 簪兒胡同	陳延恩 陳孚恩 陳石士 陳瑾光	錫→진연은	二十九日陳登之宅約陳石士來 會 又與陳子鶴叙話臨歸 用前韻書贈登之便面

7) 홍석모가 화답한 시 뒤에 상대방의 原韻이 배치되어 있다.

일시	장소	위치	참여자	受與	수창시
"	蔣鉞택	宣武門 밖 棉花下七胡同	蔣鉞 熊昂碧 劉玟	錫←장월	附原韻
				錫→장월	蔣少泉鉞宅 與熊雲客劉眉士玟會話 和贈少泉別詩二首
1월 30일	曹江택	宣武門 밖 官萊上街	曹江 熊昂碧 劉玟	錫→조강	三十日約雲客會玉水宅叙別 留贈玉水
				錫←옹앙벽	附贖詩 雲間熊昂碧拜藥於味眞書舍
				錫→옹앙벽	和贈熊雲客別詩
				錫→유민	酬劉眉士玟
				錫←유민	附贖行騷體四章
				錫←가한	附贈詩 嘉禾賈漢初草
				錫→가한	酬賈蘭皋漢
"	張深택	琉璃廠 西槐根	張深 蔣鉞 熊昂碧	錫→장심	贈張茶農深三首
				錫←장심	附答詩 茶富春江張深拜稿
				錫→熊昂碧	和贈雲客詩 少泉蔣鉞走草

중국 인물들은 앞 다투어 홍석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자 했다. 이는 1784년 홍양호의 2차 여행 때 그를 배행했던 洪羲俊처럼, 홍희준을 다시 배행하여 중국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시 홍양호와 기운의 사귀는 매우 유명하였고, 이들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때문에 중국 인물들이 그를 매우 반겼던 것이다. 같은 날 여러 사람의 집에 들른 경우도 있다. 주요한 소통 방법은 筆談이었지만 남아있는 자료가 詩뿐이므로 수창한 詩를 통해 그들의 만남을 추적할 수 있다. 아래는 북경에서 이루어진 중국 문인과의 교류 횟수와 참여자 등을 정리한 것이다. 그 결과 홍석모는 풍산 홍씨가 중에서 가장 많은 중국 문인을 만나게 되었다.

홍석모는 여행사의 자제군관으로, 공식적 업무가 없었기에 비교적 자유롭게 연경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가 약 1개월의 체류기간 동안 남긴 시는 208수로<sup>8)</sup> 연경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시로 형상화했다. 연경에서는

평균적으로 매일 6~7수의 시를 지었는데, 그 사이에 중국 문인들과 8차에 걸친 모임을 가졌다. 늘 머릿속에 시를 읊조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시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만남은 1월 21일 부터 30일까지 약 열흘 가량 이루어졌다. 중국 측 인사들도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잘 해주었다. 이들은 홍양호와 기운의 교류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다. 또한 홍석모와 동갑인 인물이 많았고 고향을 떠난 처지도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에 공감하며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 Ⅲ. 詩 수창을 통한 知音의 교류

#### 1) 三代神交의 維持와 인맥의 확장

홍석모의 연행은 할아버지 홍양호와 아버지 홍희준의 연행을 이어 삼대신교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는 이번에 홍희준을 모시고 연행을 했는데 이는 이전 연행을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연행을 통해 그는 紀樹蕪와 蔣詩 및 陳氏 一家 인물들과 30년 만에 재회하였으며, 오랫동안 끊겼던 三代神交를 이어갈 수 있었다. 홍석모가 연행에 도착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기운의 손자 紀樹蕪였다.

1월 13일 紀樹蕪를 방문하고 읊시 한 수를 써서 주다.

『기무림의 이름은 수유이며 자는 春圃이니 무림이 그의 호다. 직예성 河間府 獻縣 사람으로 유학생원에 합격하였으니, 바로 태학사 曉嵐 紀昀의 다섯 번째 손자다. 선무문 밖 虎坊橋 동쪽머리에 오래된 집이 있다. 할아버지께서 갑인년(1794)의 연행에 기운과 문자로 맺어진 친구가 되었으므로 방문하여 대

8) 208수에는 중국 문인의 수창 시 29수가 포함되어 있다.

대로 전해지는 우호를 두터이 하였다.」

吾祖神交在甲年    우리 할아버지께서 갑인년(1794)에,  
來瞻喬木感懷先    이곳에 와 교목의 世家 바라보니 감회가 앞서네.  
勝如孔李通家好    孔融과 李膺의 사귄보다 나으니,  
況是荀陳繼世賢    게다가 荀淑과 陳寔처럼 대를 이어 어진 이가 많음이어.

「효람의 손자는 모두 11형제이다. 紀樹庭은 兩泊鹽運司 知事이며, 樹馨은 湖北宜昌知府이며, 樹喬는 山西代州의 州判이며, 樹蔭은 山東候補縣丞이며, 樹馥은 廣東監運司이다.」

光動河間新鋸梓    빛나는 河間에서 새로 찍은,  
香留海外舊酬篇    아름다운 향기 바다 건너 예전 수창하던 책에 남아 있네.

「효람의 시호는 文達인데 문집이 河間에서 간행되었다. 고향에서는 『紀文達公集』이라고 부른다. 할아버지와 효람은 詩札을 주고받았다. 효람은 이것을 모두 잘 보관하여 손자인 수형에게 주어서 보물로 삼게 하였다. 할아버지도 또한 효람의 시찰을 모아 『斗南神交集』이라고 이름 지었다.」

欣披寸素聊相勉    기쁘게 마음 열고 서로 권면하는데,  
慎守前人一古甌    삼가 조상의 오래된 모전을 지키려네.9)

이는 1차 모임으로, 1월 13일 기수유의 집에서 열렸다. 그의 집은 宣武門 밖 虎坊橋 동쪽머리에 있다. 시에서는 1794년에 이루어진 할아버지 洪

9) 洪錫謨, 『游燕藁』, <初三日訪紀樹蕤書贈一律>, “【紀茂林, 名樹蕤字春圃, 茂林其號也. 直隸省河間府獻縣人, 中儒學生員, 卽大學士曉嵐紀公昫第五孫, 在宣武門外虎坊橋東頭故宅. 王考甲寅之行, 與紀公托文字之交, 故委訪以講世好.】吾祖神交在甲午, 來瞻喬木感懷先. 勝如孔李通家好, 況是荀陳繼世賢. 【曉嵐之孫, 凡十一昆第, 樹庭官兩泊鹽運司知事, 樹馨官湖北宜昌知府, 樹喬官山西代州州判, 樹蔭官山東候補縣丞, 樹馥官廣東鹽運司.】光動河間新鋸梓, 香留海外舊酬篇. 【曉嵐謚文達, 刊行文集於河間, 故鄉稱紀文達公集. 王考與曉嵐, 往復詩札, 曉嵐并粧池付孫樹馨, 作珍藏. 王考亦輯曉嵐詩札, 名之曰『斗南神交集.』”

良浩와의 만남과 그 이후로도 지속된 교류를 언급했다. 이를 孔融과 李膺 두 집안이 通家하며 친밀하게 지내던 일<sup>10)</sup>보다 낫다고 하였다. 荀淑과 陳寔은 각각 여덟 아들과 여섯 아들이 모두 훌륭한하였기에, 기윤가의 후손도 이와 마찬가지로 훌륭한함을 빗대어 표현했다. 기윤의 손자는 11명이나 되었고 당시 여러 벼슬을 하며 政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기윤의 문집 『紀文達公集』이 河間에서 인쇄되었고, 여기에는 홍양호와 교류한 기록인 『斗南神交集』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기수유도 홍석모의 시에 화답했다. 먼저 두 집안의 神交가 30년이 되었음을 말하고 홍석모의 재주와 시가 뛰어남을 칭송하였다. 그러나 기수유 자신은 할아버지를 이을 만큼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며 부끄러워하고 있다.<sup>11)</sup> 이처럼 두 사람의 교류가 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 先, 賢, 篇, 甄과 같이 동일한 韻을 사용하였다. 이후에 만난 인물과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시를 주고받았다.

2차 모임은 1월 21일 秋吟 張祥河의 집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雲客 熊昂碧과 玉水 曹江이 참여하였다. 秋吟齋라 불리는 장상하의 집은 宣武門 밖 春樹胡同에 있었다. 홍석모는 松江府 金山縣 사람인 熊昂碧을 먼저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sup>12)</sup> 웅양벽은 시와 술을 즐기던 호방한 사람으로, 장상하의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다. 홍석모는 웅양벽과의 인연으로 여러 인물을 사귄 수 있었다. 시에서 두 사람은 연경에서 만나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었으니 멀리 이별하게 될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sup>13)</sup>

10) 後漢의 孔融과 李膺을 말하는데, 공옹이 10세 때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갔다. 공옹은 당시 高士로 이름난 李膺을 찾아가 선조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이후 두 집안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孔李之好라 일컬었다. 『後漢書』 卷70, <孔融傳>.

11) 洪錫謨, 『游燕藁』, 紀樹葵, <附和詩 茂林第紀樹葵拜草>, “神交已在卅餘年, 世好重來敘後先. 日下一時敦夙契, 海東三代見名賢. 鴻才超卓追前哲, 雅韻清新入短篇. 愧我未能繩祖武, 至今猶坐舊青氈.”

12) 홍석모가 웅양벽의 집에 가서 바로 장상하를 만났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만난 장소가 장상하의 집이었고 웅양벽의 시와 붙어있으므로 같은 날이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1월 21일 舍人 詩齡 張祥河의 집에서 7언 절구에 화답하다>

『장사인의 이름은 상하이며 자는 元卿 호는 시령이다. 현재 벼슬이 內閣中書舍人으로 송강부 華亭縣 사람이다. 선무문 밖 春樹胡同에 살고 있는데 웅양 벽을 통하여 그 집으로 가 사귀게 되었다. 시령이 즉석에서 시를 지어 나에게 주자, 나도 그 시에 화답하였다.』

遠隨星駕入燕雲	머나먼 이국에서 별 따라 연경에 들어와,
白雪高樓幸見君	흰 눈 내린 높은 누대에서 다행히도 그대를 보네.
翰墨逢場旋却步	문장이 한바탕 어우러지는 곳에서 돌아 나오는 발걸음,
騷壇赤幟屬元勳	문단의 대장기는 뛰어난 그대에게 있구나. <sup>14)</sup>

위 시의 原韻에서 장상하는 홍석모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었고, 그가 아버지를 모시고 왔으며 웅양벽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귀국하는 길에는 가는 곳마다 策勳하듯이 멋진 요동의 경치를 완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sup>15)</sup> 이에 홍석모도 같은 韻으로[雲, 君, 勳] 和韻했다. 시인은 먼 조선 땅에서 연경으로 와 장상하를 만나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두 사람의 만남을 ‘문장이 한바탕 어우러지는 곳[翰墨逢場]’이라 표현하였다. 그러한 만남 이후 돌아 나오는 발걸음에서 그가 문단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하였다. 두 사람이 서로의 문장을 폼평하며 즐겼던 자리임을 짐작할 수 있다.

13) 洪錫謨, 『游燕藁』, <贈熊雲客昂碧>, “君在松江我海東, 新春邂逅帝城中. 何論別後參商隔, 一點靈犀萬里通.”

14) 洪錫謨, 『游燕藁』, <二十一日詩齡張舍人祥河宅走和一絕>, “【張舍人, 名祥河, 字元卿, 號詩齡. 今官內閣中書舍人, 寓居宣武門外春樹胡同. 因熊雲客, 往會結交. 詩齡卽席賦詩以贈, 故和之.】遠隨星駕入燕雲, 白雪高樓幸見君. 翰墨逢場旋却步, 騷壇赤幟屬元勳.”

15) 洪錫謨, 『游燕藁』, 張祥河, <附原韻 喜陶厓來訪走贈東吳張祥河>, “琴鶴歸來奉白雲, 新隨杖履覲吾君. 他時放下垂綸手, 到處林泉可策勳.”

<삼가 장시령에게 보내다>

金閨學士遇明時	조정의 학사는 밝은 시절을 만나,
染翰英譽步鳳池	문장의 영예를 누리며 鳳池를 거니는 구나.
珍重畫舫詩句滿	귀한 그림배에 시구는 가득하고,
文虹不獨米家垂	채색 무지개는 다만 米芾의 집에만 드리우지 않네. <sup>16)</sup>

21일의 만남 이후 장상하에게 보낸 시다. 밝은 시절을 만나 높은 문장력으로 조정의 문화를 펼치는 그를, 鳳池에서 노니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그가 화려한 배를 타고 즐기는데 배 안에는 詩句가 가득하며, 배경으로 아름다운 무지개가 드리우고 있다고 하였다. 산수화 한 폭을 시로 표현한 듯하다. 米芾(1051~1107)은 북송 대의 화가로 蔡襄, 蘇東坡, 黃庭堅과 함께 송사대가로 불리는 인물이다. 장시령의 시가 미불의 그림만큼 아름답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장상하를 시 한가운데 있는 배를 타고 노니는 운치 있는 이미지로 표현했다는 점이다.<sup>17)</sup> 3구에도 그의 호를 뒤집어 ‘舫詩’라고 넣어 놓았으니, 이와 같은 해학적 배치는 읽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 짓게 한다.

이 날의 모임에 참여했던 玉水 曹江과 수창한 시도 있다. 그 역시 웅양 벽을 통해 소개받았는데, 홍석모와 동갑이었으며 御使 劔亭 曹錫寶의 아들로 內閣中書의 벼슬을 맡고 있었다. 시에서는 그가 가을의 맑은 물 같은 정신과 建安 시대의 높은 문풍을 지녔다고 했다. 또한 그가 연경으로 오면서 이야기 해 준 기이한 구경꺼리에 대해 언급했다.<sup>18)</sup> 특히 1구에는 조강의 호에 들어가는 글자인 ‘玉’ 과 ‘水’를 나누어 배치했는데[秋水精神貯玉壺],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격의 없는 許與를 짐작할 수 있다. 장상하와

16) 洪錫謨, 『游燕藁』, <奉寄張詩舫>

17) 북송의 서화가 米芾이 서화를 많이 모았는데, 이를 배에 싣고 강호를 유람했다고 한다. 이때 그의 배에 광채가 뽐졌다는 ‘米家船’의 고사가 전한다.

18) 洪錫謨, 『游燕藁』, <奉贈曹玉水中書江>, “秋水精神貯玉壺, 建安風韻擅東吳. 遐蹤莫問來川蜀, 請盡奇觀安擬蘇.”

조강의 사례와 같이 중국 인물과의 교류사에서 字號를 이용한 해학적인 시를 창작하는 사례가 종종 보인다.<sup>19)</sup> 그만큼 이들의 깊은 교류와 허여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조강은 화답시에서 신선이 사는 봉래산에서 온 듯한 홍석모는 시가 뛰어나며 그가 登州에 대해서 지은 句를 보니 노련한 소동파를 대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sup>20)</sup> 두 사람이 壺, 吳, 蘇로 같은 韻을 사용했고 4구에서는 서로를 蘇東坡에 빗대었다. 홍석모는 자신의 시구를 칭 문인에게 보여주면서 품평을 받았다. 이는 그의 할아버지 홍양호가 했던 것과 같다.<sup>21)</sup> 3차 모임은 1월 25일 戴衢亨의 손자인 戴嘉會의 집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인 雲莊 戴嘉會와 登之 陳延恩이 참여하였다. 그의 집은 선무원 밖 南橫街 官房에 있었다. 그는 태학생으로 布政司 經廳管理事務에 소속되어 있었다. 홍석모는 자신을 이계의 두 번째 손자라고 밝히며, 할아버지 홍양호가 대구형과 만난 인연을 이야기하고 그 후손들이 만나니 그 기쁨이 예전과 같다고 했다.<sup>22)</sup>

이 날 자리에는 陳延恩도 참여했는데 그는 대가회의 처남으로, 한림원 학사 石士 陳用光의 從孫이자 都察院 御使 玉方 陳希祖의 아들이었다. 그들은 함께 友誼를 맺고 시를 지었는데 그의 풍모가 뛰어나며 만나질 동안의 대화 사이에 상대방을 知音이라 여기고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였

19) 상대방의 字號를 시 속에 배치하여 대상의 특징과 성격을 효과적으로 묘사하는 수단은 懷人詩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김동진, 「조선후기 懷人詩의 인물형상화 방식」, 『정신문화연구』 130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참조.

20) 洪錫謨, 『游燕藁』, 曹江, <附和詩 奉酬陶厓先生玉水弟江>, “仙山遙指隔蓬壺, 海國詩天欲近吳. 一自登州傳妙句, 祇今人竟接髯蘇.”

21) 홍양호의 『燕雲紀行』과 評批本 형태의 이본인 『燕雲雜詠』이 있다. 여기에는 9수의 시가 더 실려 있고, 李獻慶, 陸萬中, 鄭景淳, 黃景源, 蔡濟恭의 평과 1784년 2월 戴衢亨의 형인 戴心亨이 지은 것과 1786년 徐大榕(1747~1803)이 지은 두 편의 발문도 실려 있다. 정우봉, 「耳溪 洪良浩의 燕行錄에 나타난 중국체험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회연구』 63집, 한국한문학회, 2016.

22) 洪錫謨, 『游燕藁』, <二十五日戴雲莊嘉會宅書贈一絕>, “世德君家講禮門, 憶曾蓮士舊情存. 後生一見驩如故, 爲我耳溪第二孫.”

다.23) 陳延恩은 風, 胸, 東의 原韻을 네 번이나 반복한 장편의 화답시를 통해 홍석모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었다. 진연은은 홍석모가 시를 짓는 모습을 두어 10만의 병사를 지위하는 대장의 풍모와 같고, 술잔이 앞에 이르기도 전에 재빨리 시를 지으니 해동의 우뚝한 선비라고 칭송했다.24) 홍석모의 호방한 모습과 시 짓는 방식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1월 27일 장시령의 집 잔치에서 조옥수, 서성백과 만났는데 육기손이 늦게 와 함께 시를 짓다.>

『서성백의 이름은 松으로 내각중서사인이며 직역성 順天府 大興縣 출신이다. 장시령과 조옥수가 소개하여 교류하게 되었다. 나와 같은 신축생이다. 陸 祁孫은 이름이 繼輅인데, 전에 현령을 역임하였다. 강소성 常州府 陽湖縣 출신이다. 시령, 옥수와 同鄉의 문사다. 모임에 뒤늦게 참여하였다.』

光生洛社厠文筵	빛나는 서울 문인 모임에 옆자리 끼었는데,
海國離情却黯然	바다 건너 선비 떠나는 마음은 문득 어두워지네.
好作春盤燒筍會	봄날 소순회에 참여하니,
蘇黃自是後來禪	소식과 황정견이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양보해야 하겠네.25)

4차 모임은 1월 27일 장상하의 집에서 열렸다. 이 날에는 熊昂碧이 오지 못했고 元卿 張祥河, 星伯 徐松, 祁孫 陸繼輅, 玉水 曹江이 모임에 참여했다. 이 날은 홍석모와 이별을 준비하는 모임을 가졌다. 시에서 장상하는

23) 洪錫謨, 『游燕藁』, <奉贈陳登之延恩>, “德星幸觀玉方風, 葳叶列躔森在胸. 半日論心傾蓋地, 知音毋忘海之東.”

24) 洪錫謨, 『游燕藁』, 陳延恩, <附和詩 四疊原韻奉答新城陳延恩>

25) 洪錫謨, 『游燕藁』, <二十七日詩於宅餞席 與曹玉水徐星伯約會 陸祁孫追到共賦>, “徐星伯, 名松, 今官內閣中書舍人, 直隸省順天府大興縣人. 因詩於玉水, 約會訂交, 與余同辛丑生. 陸祁孫, 名繼輅, 前任知縣, 江蘇省常州府陽湖縣人. 與詩於玉水, 同鄉文士也. 追後來會.” 光生洛社厠文筵, 海國離情却黯然. 好作春盤燒筍會, 蘇黃自是後來禪.”

이날 네 사람이 참여하여 이별의 자리를 열었으며, 동쪽으로 돌아가서도 지금의 모임과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며 蘇東坡가 죽순을 구워먹은 고사를 인용했다.<sup>26)</sup> 홍석모의 위의 시도 장상하의 원운과 동일한 筵, 然, 禪을 사용했다. 높은 모임에 끼게 되었으나 이제 그대들과 헤어져야 하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자 陸繼輅와 曹江도 같은 운을 사용하여 시를 남겼다. 陸繼輅는 이날 모임에 늦게 참여하게 되어 헤어짐도 빠른 것이 슬프다고 했고,<sup>27)</sup> 曹江도 헤어지는 자리를 서글퍼하며 술잔을 드는 자신의 모습과 저녁 늦도록 지을 시를 고민하는 모습을 노래했다.<sup>28)</sup>

徐松과도 시를 주고받았다. 시에서 홍석모는 서송과 동갑이었으며 한번 만남에 기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또한 서송이 이별의 증표로 준 唐나라 때의 石經<sup>29)</sup>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sup>30)</sup> 홍석모가 庚, 兄, 情이라는 운을 활용하여 시를 짓자, 서송도 같은 운자를 두 차례 반복하여 시를 지었다. 서송은 홍석모와 동갑이었으며 생일도 20여 일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홍석모의 인품을 높게 여기고 헤어지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아름다운 경치를 통해 詩情을 일으킬 그의 모습을 노래하며 전송해주었다.<sup>31)</sup> 두 사람이 동갑이었다는 점과 曹江

26) 洪錫謨, 『游燕藁』, 張祥河, <附原韻 煮筍爲陶厓先生作別口占>, “四子招邀此別筵, 海雲握手便欣然. 東歸倘憶坡公語, 異地同參玉版禪.”

27) 洪錫謨, 『游燕藁』, 陸繼輅, <和詩 依詩於韻呈陶翁>, “相逢忽漫是離筵, 帆影潮聲一愴然. 君去好留歸燕壘, 我詩仍媿野狐禪.”

28) 洪錫謨, 『游燕藁』, 曹江, <和詩 依詩於韻呈陶翁>, “諸君草草作離筵, 獨我銜杯一愴然. 懊惱新詩夕陽墓, 憑君解脫悟枯禪.”

29) 唐石經은 당나라 楷書의 표준을 보여주는 비석으로, 일명 唐石經이라 부른다. 당 文宗 때인 大和 7년(833) 재상이던 鄭覃의 주청으로 시작해 開成 2년(837)에 완성되었다. 글의 내용은 『周易』, 『尙書』, 『禮記』, 『春秋左氏傳』, 『孝經』, 『論語』 등에서 따 왔다. 글씨는 艾居晦, 陳玠 등이 새겼다. 개성 석경은 114개의 비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28면에 65만 252자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30) 洪錫謨, 『游燕藁』, <贈徐星伯即席要和>, “浙鄉星伯是同庚, 一面欣然四海兄. 唐石墨華持贈別, 詞人好古見眞情.”

도 2월 1일에 남쪽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서로의 공감대가 더욱 강하게 작용했다. 이들은 상대방을 知音이라 여기며 같은 마음과 같은 韻으로 수창하며 이별을 아쉬워하였다.

## 2) 先代의 만남 繼承과 離別의 아쉬움 吐露

청 문인들도 홍양호와 기운의 만남과 의미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계승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홍양호와 기운이 주고받았던 시에 차운하였고 자하배를 언급하면서 이들의 만남을 계승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또한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자 아쉬운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만남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이전에 있던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다.

<1월 29일 진등지 댁에서 진석사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진자학과 돌아갈 때가 되어 작별을 고하고 앞의 운자를 사용하여 시를 지어 진등지의 부채에 써주었다.>

『陳子鶴의 이름은 孚恩이며 호는 少默으로 자학은 그의 자이다. 文淵閣 直閣事 陳希曾의 아들이며 등지의 사촌 동생이다. 을유년에 建昌府 拔貢科에 급제하여 현재는 吏部京官을 맡고 있다. 등지와 함께 살고 있어서 교류를 하게 되었다.』

清讌夙欽下士風	맑은 모임에서 선비를 대하는 풍모 일찍이 흠모하였는데,
芝蘭襟宇海雲胸	芝蘭 같은 향기로운 마음과 海雲 같은 너른 아량.
太邱典範今重視	산악 같은 법도를 지금 거듭 보니,
應報文星燭我東	문창성이 우리 동방 선비를 대하는 것 같구나. <sup>32)</sup>

31) 洪錫謨, 『游燕藁』, 徐松, <附和詩 詩於座上答陶厓同庚之作>, “相逢萍水語年庚, 差長兼旬忝作兄. 一簇春盤萬里客, 依依惜別若爲情. 仙才合是李長庚, 官職應居中裏兄. 平壤城邊春已到, 海天一碧付詩情.”

32) 洪錫謨, 『游燕藁』, <二十九日陳登之宅約陳石士來會 又與陳子鶴叙話臨歸 用前

5차와 6차 모임은 1월 29일에 열렸다. 선무문 밖 서쪽 簪兒胡同에 있는 陳延恩의 집에서 먼저 모임이 있었고, 다시 선무문 밖 棉花下七胡同에 있는 蔣鍼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처럼 두 차례로 추정하는 이유는 1월 29일에 지은 시는 모두 세 편인데 그 뒤에 1월 30일의 모임에 지은 시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문인들은 홍석모의 발행일이 임박해 오자 되도록 잦은 모임을 가지려고 하였다. 홍석모는 진연은의 집으로 찾아가 작별을 고하며 부채에 시를 써주었다. 시에서 진연은의 풍모와 문장을 칭송하였는데<sup>33)</sup> 이 자리에는 陳延恩, 子鶴 陳孚恩, 陳石士가 참여했다.

6차 모임은 장월의 집에서 열렸고, 少泉 蔣鍼, 雲客 熊昂碧, 眉士 劉玟을 만난다. 蔣鍼은 秋吟 蔣詩의 두 번째 아들로 절강성 杭州府 仁和縣출신이다. 갑인년에 洪良浩가 紀昀의 집에서 만났을 때 기운이 지어준 시문 집서의 글씨를 蔣詩가 썼던 일이 있다. 그는 南城監察御使로 있다가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아들인 장월만 북경에 남아있었다. 홍석모는 자주 장월의 집을 찾아가 옛날이야기를 나누었다. 장월은 30여 년 전, 기운이 홍양호를 그리워하며 지은 <寄懷洪良浩><sup>34)</sup>의 韻을 활용하여 시를 지었고, [分, 雲, 群, 聞, 君; 臺, 來, 陪, 開, 杯] 그 시에 대해 홍석모도 같은 운으로 화답하였다.

장월은 첫 번째 시에서 삼십년 전 홍양호와 기운의 교유에 대해 언급하

韻書贈登之便面>, “陳子學, 名孚恩, 號少默, 子鶴其字也. 文淵閣直閣事希曾之子, 登之之從弟. 乙酉選建昌府拔貢科, 今官吏部京官, 余燈之同居, 故得與結交焉.” 清謙夙欽下土風, 芝蘭襟宇海雲胸. 太邱典範今重視, 應報文星燭我東.”

33) 洪錫謨, 『游燕藁』, <二十九日陳登之宅約陳石士來會, 又與陳子鶴敘話臨歸, 用前韻書贈登之便面>, “清謙夙欽下土風, 芝蘭襟宇海雲胸. 太邱典範今重視, 應報文星燭我東.”

34) 紀昀, 『紀文達公遺集』, <懷朝鮮洪良浩>, “『紀文達公遺集』, <懷朝鮮洪良浩>, 其一, “淼漫鯨波兩地分, 懷人時望海東雲. 文章意氣期韓孟, 父子交游近紀羣. 【令似亦與余善】 鶴髮劇憐皆已老, 【與余同甲辰生】 魚書莫惜數相聞. 新詩能向星軺寄, 也抵清談一晤君.”; 其二, “衰翁五度掌烏臺, 又到春卿署裏來. 譯使易從通問訊, 【頒朔時見來使邊君稍詢近狀】 御筵彌覺憶追陪. 梯航不阻三山遠, 探賚行逢九塞開. 豐饒儻能重奉使, 待君同醉紫霞杯.”

고, 이제 그 흔적을 찾아 왔다가 조선으로 돌아가게 된 홍석모와의 이별을 안타까워하였다. 또한 풍류 있는 그의 명성이 중국에 널리 알려졌다고 했다. 다만 그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주지 못해 아쉬워하였다. 두 번째 여행사절들의 人文을 잇는 홍석모가 오니 중국의 여러 名士들이 참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가 많은 시를 지어 시가 행낭에 가득하며 돌아가는 길에는 따라오는 봄을 노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蔣鉞은 부모님께 축수할 술을 부어 올리는 데 쓰라며 紫霞杯를 선물로 준다.<sup>35)</sup>

자하배는 기운이 홍양호를 그리워하며 다시 한 번 사신으로 중국에 온다면 함께 마시겠다고 한 술잔이다. 이처럼 홍석모와 중국 문인들은 홍양호와 기운의 교류를 추억하고 또다시 세대를 넘어서는 만남의 의미를 쌓아가고 있었다. 이들은 홍양호와 기운의 다음 세대로, 홍석모가 옛날의 사례와 같이 부친 홍희준을 모시고 온다는 것은 연경 선비들에게도 일생에 흔하지 않을 일대 사건이었다.

<소천 장월의 집에서 운운객, 미사 유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소천에게 이별하는 시를 화답해 주었다.>

行過薊樹接金臺	薊門煙樹를 지나 황금대 마주하고,
緬憶昌黎送董來	한유의 고향 지나며 동기창의 별장 지났네.
海國幾嘆半生老	바다 건너 조선에서 반평생 보낸 것이 아쉬운데,
星槎還踵昔年陪	사신으로 와 예전 조부가 왔던 길을 밟아보네.
唐虞故地心初豁	요의 당과 순의 우의 옛 땅을 처음 구경하며,
王李諸君眼一開	중국 여러 친구들에게서 안목이 트이네.
多謝少泉情好篤	돈독한 마음의 소천에게 감사함 느끼며,
祝親篤贈紫霞杯	부모님의 祝壽에 자하배로 올리리라.

35) 洪錫謨, 『游燕藁』, 蔣鉞, <附原韻>, 【用紀文達公, 寄懷尊大人耳溪先生原韻, 奉之歸鞭.】其一, “交遊詎以海天分, 念舊來過義薄雲. 三十年餘追往事, 四千里外惜離群. 偶持旌節日邊駐, 藉使風流天下聞. 恨我制中難設餞, 未能舉白一浮君.”; 其二, “聲華頃已噪燕臺, 佇看星軺歸去來. 東海人文欣有繼, 西山猿鶴喜相陪. 遊裝詩挾千篇富, 驛路春隨一棹開. 他日萊衣如舞罷, 袖中好進紫霞杯.”

『소천이 자하배를 주면서 부모님께 전해달라고 하였다.』<sup>36)</sup>

蔣鍼의 시에 대해 홍석모도 같은 운으로 화답하였다. 먼저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조선에 돌아가도 중국에서 만난 문사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한다. 장월은 기운가와 인연이 있는 뛰어난 인물인데, 그가 최근 어머니 뺨을 당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와 그대를 만날 수 있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두 번째 시는 장월의 시 중 ‘驛路春隨一棹開’라는 구에 대한 화답이다. 요동의 계문연수와 黃金臺, 한유의 고향과 동기창의 별장 등을 지나오며 구경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지났던 길이라고 했다. 반평생을 조선 땅에서 보낸 것이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중국 친구들을 통해 시야를 트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자하배를 주어 감사하며 부모님의 축수에 자하배로 올리겠다고 하였다.

장월은 紀昀이 홍양호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를 次韻하여 홍석모에게 주었다. 여기에 장월은 모친상을 입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자하배를 통해 자신은 어머니를 잃었지만 홍석모에게는 부모를 잘 모시라는 마음을 전한다. 이처럼 서로의 부모님까지 생각하는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들의 만남은 1월 30일에 열린 7차와 8차 모임으로 끝이 난다. 선무문

36) 洪錫謨, 『游燕藁』, <蔣少泉鍼宅 與熊雲客劉眉士玫會話 和贈少泉別詩二首>, “【蔣少泉, 名鍼字左之, 少泉其號也. 秋吟侍御詩之第二子, 浙江省杭州府仁和縣人. 寓居宣武門外棉花七胡同. 昔在甲寅, 家君與秋吟, 相面於紀曉嵐門下. 其時曉嵐作王考詩文集序以贈, 卽秋吟筆也. 秋吟以南城監察御史, 罷官歸鄉, 少泉獨住京寓, 屢訪叙舊. 少泉臨別贈詩, 故依韻和之. 劉眉士, 卽錢塘縣人, 與少泉同鄉. 雲客相好, 約會于此, 與之結交, 余之同年生也.】其一 “文筵敘舊恨臨分, 萬里相思洛水雲. 春帆門庭懷托契【春帆紀尙書號也.】, 悉吟詞翰識超群. 陶家鶴吊員如夢【少泉問遭內艱故云.】, 周雅烏嚶那更聞. 傾倒寸心悄鄙吝, 萍蹤幾日再逢君.”; 其二 “行過薊樹接金臺, 緬憶昌黎送董來. 海國幾嘆半生老, 星槎還踵昔年陪. 唐虞故地心初豁, 王李諸君眼一開. 多謝少泉情好篤, 祝親篤贈紫霞杯.【少泉贈紫霞杯一對, 爲我作養親之資.】”

밖 官萊上街에 있는 曹江의 집에서 먼저 모임이 있었고 玉水 曹江, 雲客 熊昂碧, 眉士 劉玟이 참여하였다. 藺皋 賈漢과는 직접 만나지 못하였다<sup>37)</sup> 그 다음으로 선무문 밖 琉璃廠 西槐根에 있는 張深의 집을 찾아갔다. 조강을 비롯한 거의 모든 참여자와 시를 주고받았는데, 이 날은 그야말로 이별의 아쉬움이 절절히 흐르는 날이었다.

옥수 조강의 집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며 시를 지어주었다. 홍석모는 조강과 동갑이었는데 그는 상당히 젊어 보이는 외모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눈을 비비고 보아도 봄날의 젊은이처럼 보인다고 했다. 두 사람의 사귀는 金蘭契와 같고 나를 알아준은 伯牙의 流水曲을 알아차리는 鍾子期和 같다고 하였고, 경련에서는 압록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신의 서글픈 마음을 드러냈다.<sup>38)</sup> 홍석모는 조강을 知音으로 여기고 그와의 이별을 아쉬워했다.

熊昂碧은 홍석모가 연경의 인물을 만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인물이었다. 그는 咪眞書舍에서 네 수의 전별시를 보내왔다. 첫째 수는 7언으로, 바다 동쪽 조선에서 시로 드날린 홍양호의 명성을 언급하였고, 그 학문적 전통을 홍석모가 이어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부평초와 같은 인간의 삶에서 만남은 짧디 짧아서 이처럼 종이 한 장에 마음을 풀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세대를 이은 교유가 이어졌지만 세월은 너무나 빠르게 흐른다고 하면서 紀昀의 무덤 위에 몇 번이나 가을바람이 불어왔느냐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sup>39)</sup>

37) 賈漢과는 직접 만나지 못하고 시만 주고받던 것으로 보인다. 賈漢은 웅양벽에게 보낸 시찰을 보고 나서 홍석모와 정신적인 교류를 하고 싶어 시를 보내왔다고 하였는데,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시의 내용으로 보아 이 날의 모임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또한 熊昂碧은 咪眞書舍에서 절하며 쓴다는 내용으로 보아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듯 하나, 홍석모의 시에서는 웅양벽이 준 술잔을 쥐었다는 내용도 있기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8) 洪錫謨, 『游燕藁』, <三十日約雲客會玉水宅叙別 留贈玉水>, “詞苑叢群玉, 喜君拭目青. 年光忝雌甲, 春色屬新丁. 交托猗蘭契, 曲知流水聽. 鴨江歸棹遠, 惆悵暮雲停.”

39) 洪錫謨, 『游燕藁』, 熊昂碧, <附驢詩 雲間熊昂碧拜藁於咪眞書舍>, 其一, “蒼茫遙指海雲邊, 東國聲詩盛昔年. 家學愛君能嗣續, 不殊蘇氏有斜川. 天涯萍聚惜匆匆,

또한 5언 시 3수를 통해 보면 응양벽과 만나는 사이에 홍석모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전해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응양벽이 홍양호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인품과 문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그는 『紀文達集』에 있는 홍양호의 序文 두 편과 『李廣堂詩話』를 읽고 홍양호의 인품을 잘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응양벽은 홍석모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이별주 천 잔을 따라주고, 떠나는 그를 따르는 봄바람처럼 떠나갈 그의 자취를 훑었다. 술 천 잔을 따라주었다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흘러넘친다는 말이다. 尾聯에서는 뒷날 다시 만나 이야기 나누게 된다면, 귀밑머리에 흰 서리가 내려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sup>40)</sup> 두 사람은 일생에서 이와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음을 직감하고 있다. 이후로 이들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홍석모에게 연행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응운객의 이별시에 화답하다>

更把露蕤觴	다시 露蕤가 준 술잔 잡으니,
離懷與日長	이별의 정은 봄날 해가 길어지는 것 같구나.
交情追管鮑	교유의 마음 관중과 포숙아와 같고,
詞格入蘇黃	문장의 격조는 소동파와 황정건 같네.
地戀桑三宿	땡나무 아래 삼일을 머무르면 연연하는 마음 생기는데
人歸海一方	나그네는 바다 건너 돌아가는구나.
永言不可忘	맹세하노니 결코 잊지 않으리,

羅縷情懷一紙中。白髮漫愁人代速，尚書墓上幾秋風。【謂紀文達公，尊大父尊甫，俱與文達有舊事，在乾隆年。今君之來，已隔三十餘年矣。】”

- 40) 洪錫謨, 『游燕藁』, 熊昂碧, <附驢詩 雲間熊昂碧拜藁於味眞書舍>, 其二, “才名洪王父, 我昔已心傾。【尊大父品詣文章, 爲東國冠。余讀『紀文達集』中二序, 及『李廣堂詩話』, 頗得其詳。】落筆波瀾富, 論文金石真。風流憑繼起, 家世有傳人。喜趨星軺便, 空齋過從頻。”; 其三, “忠孝平生志, 皇華又白華。【君曾知郡事, 告養在籍, 茲以奉命侍尊甫來京。】頻年依杖履, 遠道涉風水。旌節停三月, 賢勞著一家。尙期旋里日, 莫便臥烟霞。”; 其四, “別酒進千觴, 春風驛路長。波痕平鴨綠, 【君回由鴨綠江】柳色薦鶯黃。風月渺無際, 雲山阻一方。異時重把晤, 恐訝鬢添霜。”

秋水有葭霜

가을 강가 갈대에 서리가 내릴지라도.<sup>41)</sup>

홍석모는 위의 시로 응양벽에게 화답해주었다. 露蕪는 응양벽의 자인데 그가 따라 준 술잔을 쥐고 있으니 떠나야 하는 마음이 봄날의 해가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였다. 두 사람의 교유는 管鮑之交와 같고 문장의 격조는 蘇東坡와 黃庭堅의 수준에 든다고 했다. 홍석모는 영원히 응양벽을 잊지 않겠노라고 맹세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깊은 교유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眉士 劉玟은 離騷體로 4장의 장편시를 지어 주었다. 첫째 수에서는 홍경모의 뛰어난 난초의 꽃과 봉황 중의 난새로 비유하였고, 그와 자신이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두 사람은 보자마자 서로를 존모하게 되어 마음을 사로잡아 잊을 수가 없게 되었음을 밝혔다. 자신도 왜 이와 같이 그리운 마음이 드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둘째 수에서는 홍석모의 인품을 향기로운 난초에 비유하고 뛰어난 문재를 지녔다고 했다. 시인은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으며, 군자인 그대만을 바라겠다고 하였다. 셋째 수에서는 서로의 만남이 너무나 짧고 이별의 고통은 크다고 하였다. 그대를 만날 때는 황홀하였으나 떠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텅 빈듯하며, 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넷째 수에서는 홍석모가 떠날 앞길을 시로 함께해주었다. 하얀 보름달이 앞을 비춰주고, 수레를 앞장서서 몰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별하는 자리의 온갖 생각이 들지만 서로 힘써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오래도록 건강하기를 기원하였다.<sup>42)</sup>

41) 洪錫謨, 『游燕藁』, <和贈熊雲客別詩>

42) 洪錫謨, 『游燕藁』, 劉玟, <附驢行騷體四章>, 其一, “蘭有秀兮鳳有鸞, 徠詰人兮天之緣. 羌一見兮心相憐, 結予意兮不能捐. 贈桂枝兮裏個依, 余初不知其何故兮情絪軫兮纏綿.”; 其二, “幽蘭兮猗猗, 芳遠兮益奇. 淸華映麗兮, 文彩陸離. 樂莫樂兮心相知, 彼君子兮維斯企之.”; 其三, “握手兮苦少, 離情兮苦多. 儻而來兮忽而逝, 年華逝兮空蹉跎. 建邦設都兮維壬有域, 駢駢皇華兮每及靡他. 恍兮忽慄兮靡情, 無極兮心焉薄. 專思子兮不可化, 天各方兮可奈何.”; 其四, “獲瓊瑤而不捨兮,

유민의 시 중 첫째 수는 배경을 모른 채 읽으면 마치 사랑하는 이성에게 보내는 시로 착각할 수도 있을듯하다. 이별의 아쉬움과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득 담았다.

<미사 유민에게 수창하다>

同庚眉士愛風流	동갑인 미사는 풍류를 사랑하는데,
相送河橋樹景浮	나무 그림자 비치는 다리에서 서로 이별하네.
聞道錢塘天下美	듣건대 錢塘은 천하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데,
携君安得泛輕舟	그대와 함께 가벼운 배 타고 노닐 수 있을까.43)

유민의 장편 시에 대한 홍석모의 수창이다. 錢塘은 유민의 고향으로 경치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곳이다. 유민은 전당의 아름다운 경관을 필담으로 전해주었을 것이다. 홍석모는 그와 함께 배를 타고 그곳의 경치를 즐기며 노니는 꿈을 꾸어본다. 비록 짧은 시이지만 가슴을 파고드는 아련함이 있다. 실제로 이를 수 없는 꿈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시를 수창한 인물은 蘭皋 賈漢이다. 시의 내용을 통해 보면 이날 시만 주고받았으며 자리에 참여하지는 않은 듯하다. 그는 절강성 가흥부 출신으로, 임오년(1822)에 孝廉으로 천거되었다. 웅양벽, 유민와 교류하였는데 웅양벽에게 보낸 홍석모의 詩札을 보고 정신적인 교류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일어 시를 보내왔다고 하였다.

가한은 첫째 시에서 홍석모가 사신으로 중국에 왔으며 그의 풍모와 명성을 노래하며 조선의 산과 강의 맑은 기운이 그에게 모였다고 했다. 또한 그의 시에서도 인품이 느껴지니 읽은 후에 향기로운 자취를 우러러 보

---

恬斯愉兮心相傾。孰離合之可爲兮，羌愈思兮愁人。使明月之常圓兮，蹇子焉知其所程。遭華胥余策霆兮，振心旌之體體。選署夢神以侍轂兮，馳三韓之鬼鬼。凌幽遐而徑度兮，寤中心之俊才。惺棘昭其炯炯兮，焉乃逝以徘徊。班紛紛之離思兮，余方自哂其意長。維專專之不可化兮，愿各勵而自臧。勉晞古以貽晦兮，頌千春之無恙。”

43) 洪錫謨, 『游燕藁』, 酬劉眉士玟

게 되었다고 하였다. 둘째 시에서는 청나라에서 보인 훌륭한 모습을 통해 높은 인품이 드러났으며 문장 하는 집안의 전통은 대대로 문단에서 존중 받는다고 했다. 특히 홍석모의 시가 王世貞의 수준에 올라 있어, 읽으면 향기로움이 배어나온다고 극찬하였다.<sup>44)</sup> 가한은 여러 수의 시를 통해 홍석모와 사귀고자 하는 넘치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가한에 대한 홍석모의 화답은 우선 자신이 사신으로 중국에 왔음을 밝히면서 시작한다. 이어서 가한을 난초의 향기를 머금은 뛰어난 선비라고 하였다. 시를 통해 알게 되었기에 그를 만난 적은 없지만 마음이 들고 瓊琚를 나에게 주니 고맙다고 하였다. 瓊琚는 『詩經』에 나오는 말로,<sup>45)</sup> 원래의 의미는 아름다운 옥으로 만든 패옥(佩玉)이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이가 보내온 시를 가리킨다.<sup>46)</sup> 두 사람은 마치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는 남녀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을 드러내었다.

이 날 마지막으로 만나 시를 주고받은 인물은 張深이다. 장심의 字는 子淵이며 호는 茶農이다. 그는 유리창 西槐根 부근에 작은 집을 짓고서 책을 읽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았으며, 정교수왕교수와 함께 三絶로 일컬어지는 인물이었다. 그는 홍석모와 동갑이었으며 조선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한다고 하여, 그의 집으로 찾아가 교유하게 된 것이다.

홍석모는 시에서 다농의 훌륭한 인품과 많은 책을 보유한 그의 서재를 묘사하였고, 너무 늦게 知音을 만나게 된 것이 아쉽다고 하였다.<sup>47)</sup> 다음은

44) 洪錫謨, 『游燕藁』, 賈漢, <附贈詩 嘉禾賈漢初草>, 其一, “仙馭來雙闕, 程途越萬重. 西京留典物, 東國溯提封. 劍珮聲華著, 山河淑氣鍾. 琦尙貽翰墨, 麗罷仰芳蹤.”; 其二, “夢想瑤華願未償, 離懷又起白雲鄉. 一帆春水江天暖, 四牡皇華驛路香. 上國羽儀隆品望, 詞曹家世重文章. 論詩倘有漁洋在, 異日還留齒頰芳.”

45) 『詩經』, 「衛風」, <木瓜>, “投我以木瓜, 報之以瓊琚, 匪報也, 永以爲好也.”

46) 洪錫謨, 『游燕藁』, <酬賈蘭泉漢>, 【賈君名漢, 號蘭泉. 浙江省嘉興府人, 壬午孝廉. 與雲客尾士遊, 見余詩札於雲客寓齋, 有神交之感, 贈之以詩, 故作此以酬其意焉.】“海客春風過雪樓, 如蘭秀士坐香留. 縱無一面心先折, 多謝瓊琚向我投.”

47) 洪錫謨, 『游燕藁』, 賈漢, <贈張茶農深 三首>, “【張深, 字子淵, 號茶農. 寓居琉璃廠西槐根小築, 以書史自娛. 現爲鄭王教授, 藝稱三絶. 曾與東人相好, 故聞名往訪托交, 與余同年生也.】其一; 茶農知是玉川群, 比諸樊稼却清芬. 多君滿貯水壺

다농의 화답시다.

<다농의 답시>

身本烟波舊釣徒      나는 본래 자연 속에 살며 낚시 하는 사람,  
偶攬塵事別江湖      우연히 세속의 일에 얽매어 강호를 떠났네.  
相逢一笑長安酒      장안에서 술을 놓고 마주 앉아 웃으니,  
合作雲萍主客圖      구름과 부평초가 만난 것 그림 같구나.

理原萬物貫人天      이치는 만물의 근원, 사람과 우주에도 해당하는데,  
侍老餘閑手一篇      아버이 모시다가 한가한 시간에 책을 펼쳐보네.  
聞道豐山家學譜      풍산 홍씨 가학의 연원을 들었는데,  
淵源遠邁許陽川      뿌리가 깊어 저 멀리 許陽川까지 이어지네.

故鄉路各三千里      고향 길은 그대나 나나 삼천 리,  
壯齒春同卅七庚      장년의 47세 동갑이구나.  
一片冰心足相照      한 조각의 얼음 같은 마음 서로 비출 수 있으니,  
月輪終覺易虧盈      달은 쉽게 차고 이지러짐을 깨닫게 되리라.

『마지막 구는 도애의 원시에 대한 대답이다.』<sup>48)</sup>

첫 수에서는 자신을 소개하고 두 사람이 만난 모습을 그렸다. 둘째 수에서는 홍석모의 가학이 許陽川까지 이어진다고 하였다.<sup>49)</sup> 마지막 수에서는 서로 삼천리 길을 떠나 고향이 아닌 곳에 있고 47세 동갑이라고 하였다. 특히 그는 우리들의 마음이 같으니 그것을 비출 달도 필요 없다고 하였다. 그야말로知音을 얻었다고 할만하다. 지금까지 홍석모와 청 문인

水, 一見令人洗漚棼. 其二; 坐擁芸床萬卷書, 易知難忘古槐居. 寒燈教子人如玉, 留看清陰綠滿闌. 其三; 陳榻牙香披素襟, 米缸珍玩賞知音. 同庚勝友相逢晚, 東海水輪是片心.”

48) 洪錫謨, 『游燕藁』, 張深, <附答詩 茶富春江張深拜稿>.

49) 許陽川은 陽川 許氏로 보이는데 자세한 것은 미상이다.

이 주고받은 시를 통해 여덟 차례의 만남과 교류 양상을 추적해 보았다. 이들의 가진 만남은 30년 전 홍양호와 기윤의 교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만나자 마자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IV. 만남의 장소, 북경 유리창

18세기 중반, 洪大容이 杭州의 세 선비 嚴誠, 陸飛, 潘庭筠과 사귀었던 일은 한중 교류사의 획을 그은 사건이다. 이후 홍대용과 엄성은 天涯知己로, 죽을 때까지 서로를 그리워하며 평생 국경을 넘어선 우정을 나누었다.重病에 걸린 엄성이 홍대용이 선물한 떡의 향을 맡으며 숨을 거둔 이야기와 그가 臨終했다는 소식을 듣고 홍대용이 지어 보낸 제문이 그의 2주기 제삿날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도 유명하다.<sup>50)</sup>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 다른 방식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이는 洪良浩家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들은 중국 인물과 활발한 교류를 펼쳤다. 이전의 연행이 1회성에 그쳤다면 이들은 한 번 이어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三代神交’라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교류 방식을 형성하였다. 그들 역시 중국 측 인물과 실제로 얼굴을 마주할 기회는 평생 1~2차례에 그쳤을 뿐이다. 하지만 인연이 이어진 이후 代를 이어가며 연행을 지속하였고, 매년 연경으로 떠나는 사신 단에게 중국으로 보낼 尺牘을 부탁하면서,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남의 의미를 평생 동안 간직하였다. 이처럼 子孫까지 이어진 수십 년간의 교류는 중국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중국 측 문인들도 만남을

50) 이철희, 「18세기 한중 지식인 교류와 天涯知己의 조건 -洪大容의 『乾淨洞筆談』과 嚴誠의 『日下題襟集』의 대비적 고찰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5집, 대동문화연구원, 2014.

이어가고자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의 만남은 모두 북경 유리창에서 이루어졌다. 18세기 후반부터 조선 연행사들은 청나라 인물을 만나고 그들과 교류하고 인정을 받으려는 열망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sup>51)</sup>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문화의 중심지인 유리창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홍석모는 유리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유리창>

正陽門外飽經過	正陽門 밖으로 한참 걸어가면,
百隊旗亭盛物華	수많은 가게의 깃발, 화려한 물건 넘쳐나네.
綺構皆成多賓塔	아름답게 꾸민 가게, 모두 다보탑 같고
璧房盡是銷金鍋	화려하게 장식한 상점, 모두 금을 녹인 듯.
車車馬馬人如織	수레가 이어지고 말과 사람이 뒤엉켜 옷감을 짠 듯하여,
雨雨風風眼欲花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눈앞이 현란하구나.
天下珍藏都會此	천하의 진귀한 물건은 모두 이곳에 모이니
波斯市色間維何	페르시아의 시장이 이 보다 나은 지? <sup>52)</sup>

유리창에 대한 홍경모의 시다. 정양문 밖으로 나가면 나타나는 유리창 거리를 묘사했다. 수많은 가게와 화려한 물건들, 이러한 여러 상점들은 북경에서 최고라고 하였다. 사람과 말 수레가 가득하여 하나의 옷감을 짠 듯 하다는 말을 통해 유리창의 변화함을 눈에 보이듯 묘사하고 있다. 해당 시의 주석에서도 유리창의 변화함과 다양한 색의 유리벽돌을 구워내는 모습을 설명했다.<sup>53)</sup>

그러나 이러한 묘사는 다른 연행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

51) 유정, 「18세기 朝淸문인 교류 장소 논략」, 『한문학보』 30집, 우리한문학회, 2014.

52) 洪錫謨, 『游燕藁』, <琉璃廠>.

53) 洪錫謨, 『游燕藁』, “【廠在正陽門外西亘至宣武門外可五里許, 別立東西里門, 市肆羅列, 財貨委積, 為四方交易之淵藪, 官設琉璃窰於此中, 以陶琉璃, 器色有青黃翡翠紫綠黑靛異名, 各按模式, 吻大小垂脊之飾, 名之曰琉璃廠。】”

다. 박지원은 『熱河日記』에서 일대 조선 선비들의 마음속에 이곳은 ‘中華壯觀’의 하나라고 하였다.<sup>54)</sup> 홍경모의 유리창에 대한 서술도 그 변화함을 설명하고 있다.<sup>55)</sup> 이처럼 유리창의 서술은 이전 시대부터 많이 기술되었으므로 변별성이 크지 않다.

그들은 유리창의 화려한 모습에 이끌리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주목한 것은 중국 문인과의 만남이었다. 이는 그의 할아버지인 홍양호 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그는 大觀을 추구하여 더 넓은 세상을 보고자하였다. 이는 단순히 멋진 壯觀 뿐만 아니라 역사적 유물과 훌륭한 인물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인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모든 것을 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모든 여행자들이 겨우 중국의 한 귀퉁이만 보고 돌아갈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sup>56)</sup> 그 때문에 유리창이라는 장소보다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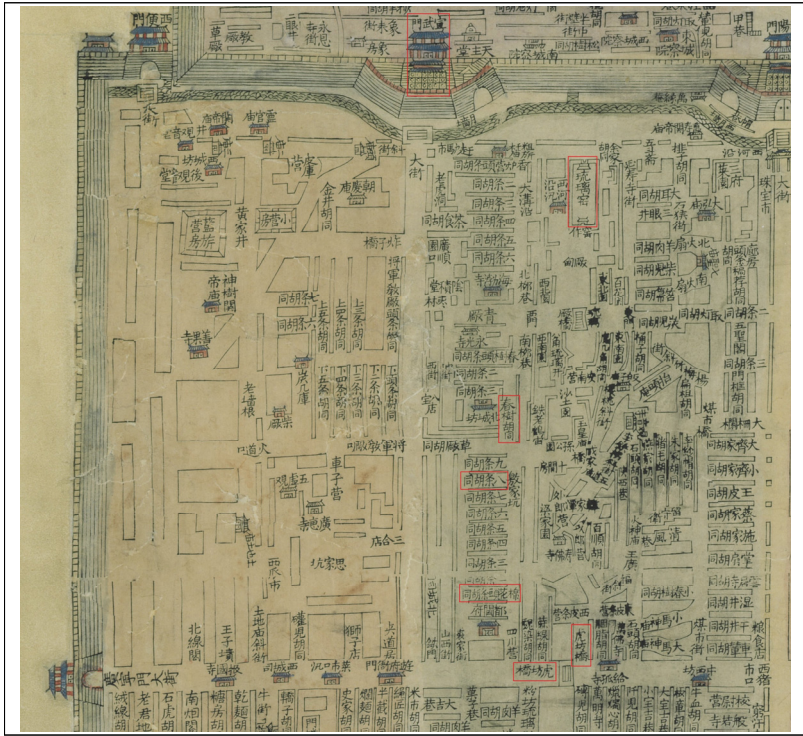
유리창은 건륭 시기 각종 문인들이 모여들고 머무르는 장소가 되었다. 유리창에는 서점도 매우 많았으며, 회관이라는 곳도 많았는데, 四川新會館, 安徽會館, 湖廣會館 등이 바로 이것이다. 이들은 매년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문인들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중국 전역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sup>57)</sup> 홍석모에게는 이곳이 중국의 인재가 모두 모여 있어, 大觀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소였던 것이다.

54) 朴趾源, 「駟汎隨筆」, “我東人士初逢自燕還者, 必問曰: ‘君行第一壯觀何物也’ 第爲拈出其第一壯觀而道之也.”

55) 洪敬謨, 游記[玉河涉筆], <正陽門>, “百貨雲集, 較前代尤盛, 是爲琉璃廠, 足徵皇都景物之繁.”

56) 『耳溪集』卷11, 「送從子樂游赴燕序」, “噫! 汝與我相繼賓上國, 終未能履周漢之舊都, 訪齊魯之故家, 覽吳楚之江山, 是可恨也. 雖然, 紀公博學能文章, 負一代重名. 嘗持節, 窮黃河之源, 躡崑崙之西, 遠過張博望舊轍, 可謂盡天下大觀者也. 見斯人聽其言論, 亦足比蘇子由大觀矣.”

57) 王治秋 『琉璃廠史話』, 三聯書店, 1963, 第18~19頁.



像素(清), 『京城全圖』, 清 嘉慶 年間(1796~1820)

향후 다양한 지도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서사와 문인들의 저작 위치의 고증을 진행한다면 당대 유리창의 면모가 더욱 분명해 질 것이라 생각한다. 홍석모가 만난 문인들의 저작은 모두 宣武門 밖 유리창 일대에 있었다. 虎坊橋 동쪽머리, 春樹胡同, 南橫街 官房, 簪兒胡同, 棉花下七胡同, 官萊上街, 琉璃廠 西槐根는 구체적인 위치 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행기록 등을 분석하여 유리창 書肆의 모습들을 조금씩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유리창은 100여년 사이에 같은 위치에 있던 서점이 없을 정도로 활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58)</sup> 이와 함께 여러 문인들

58) 정민, 「연행 기록을 통해본 18~19세기 북경 유리창 서점가」, 『동아시아문화연

의 저택을 함께 정리한다면 당대 모습을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 V. 맺음말

洪錫謨는 부친인 洪羲俊이 洪良浩를 배행하여 연행을 다녀온 사례를 그대로 이어받은 인물이다. 당시 그는 洪羲俊을 배행하여 연행을 떠났다. 홍석모는 풍산 홍씨가 중에서 비교적 많은 淸 문인과 사귀었으며 그들 또한 적극적으로 만남에 응해주었다. 청 문인들은 內閣中書 계열의 벼슬이 있었으며 우연히도 홍석모와 동갑이 많았다. 또한 고향을 떠나온 처지 등도 비슷하여 그들의 만남은 짧았지만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홍양호의 손자 홍석모가 예전과 같이 아버지를 모시고 온다는 것은, 연경 선비들에게도 다시 있기 어려운 일대 사건이었기에 만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수창한 시를 분석함으로써, 교유의 양상과 감정의 흐름을 살필 수 있었다. 구체적인 대화가 담긴 필담은 존재하지 않으나, 시를 통해서도 그들의 교유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상대방의 인품을 높이 여기고 풍모와 인격을 노래하는 내용의 시를 和韻의 형식으로 지었다. 상대방의 자호를 이용한 장난스러운 시도 있는데 그만큼 그들의 허물없는 許與를 알 수 있다. 헤어지기 전에 지은 시에서는 이별의 아쉬움과 그리움 등이 절절히 흐르고 있다. 이들의 만남은 연경에 머무른 1개월 중에서 열흘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몇 십 년의 삶을 함께한 知音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이 나눈 진심의 교유는 몇 번 만났을 뿐인 사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들이 만난 장소는, 북경 宣武門 밖 유리창 일대였다. 이곳은 기윤의

손자 기수유의 저택을 비롯하여 홍석모가 만난 인물이 주로 거주하였던 곳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虎坊橋 동쪽머리, 春樹胡同, 南橫街 官房, 簪兒胡洞, 棉花下七胡同, 官萊上街, 琉璃廠 西槐根로 현재 남아있는 청대 지도를 통해 구체적인 위치를 비정할 수 있다. 조선 사람을 만나 교류하기를 좋아하는 인물도 있었다는 서술을 통해서 유리창은 조선 사행과 중국 선비들 사이에 활발한 교류의 장이 열렸음을 알 수 있다.

### 〈參考 文獻〉

#### \*국내 고전 자료

- 洪良浩, 『耳溪集』  
洪良浩, 『燕雲紀行』  
洪良浩, 『燕雲雜詠』  
洪錫謨, 『游燕藁』  
洪敬謨, 『游記[玉河涉筆]』

#### \*국내 연구자 논저

- 김동진, 「조선후기 懷人詩의 인물형상화 방식」, 『정신문화연구』 130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박수밀, 「북경 琉璃廠과 지식인 교류의 세 층위」, 『한국언어문화』 43,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유정, 「18세기 朝淸문인 교류 장소 論略」, 『한문학보』 30집, 우리한문학회, 2014.  
이근선, 「陶厓 홍석모의 『游燕藁』」, 『한문학보』 11집, 우리한문학회, 2004.  
이홍식, 「여행록 소재 북경 유리창 기록의 변화 추이와 의미 탐색」, 『한문학논집』 41집, 근역한문학회, 2015.  
정민, 「여행 기록을 통해본 18~19세기 북경 유리창 서점가」, 『동아시아문화연구』 50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정우봉, 「耳溪 洪良浩의 燕行錄에 나타난 중국체험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63집, 한국한문학회, 2016.  
홍석모 저, 이관성 역, 「유연고 해제」, 『달빛 아래 연경에서 노닐며』, 문진, 2010.

#### \*동양권 고전 자료

- 『禮記』  
『論語』  
『尙書』  
『詩經』

『周易』

『春秋左氏傳』

『孝經』

『後漢書』

紀昀(清), 『紀文達集』

『李廣堂詩話』

## Abstract

*The Meeting of Joseon Missions[Hong Seok-Mo In 1827] to  
Imperial China and Scholars in Qing Dynasty  
and Beijing Liulichang Culture Street*

Kim Dong-Geon\*

Hong Seok-mo succeeded his father, Hong Hee-joon who traveled to a mission with Hong Yang-ho. He had many Chinese scholars compared with other Pungsan Hong's families. Many Chinese scholars in Qing Dynasty were officers in the cabinet and they had many commons with Hong; of the same age and left their hometowns. Therefore, they could get close in a short time. It was a big event among Yangjing scholars that Hong Seok-mo, the grandson of Hong Yang-ho brought his father as a delegate like the previous mission, so they were positive to meet Hong.

We could understand how they built up a friendship and how they felt to analyze their poems. There is no documents containing their specific dialogues, but poems showed their friendship well. Many times they wrote a poem to compose a verse in response with a theme of respect for the other. Sometimes they wrote funny poems using receiver's land number, which indicates that they were open-minded. The poem recited before leaving China expressed how much they were sad to leave and missed each other earnestly.

The place they met was around Liulichang Culture Street, the outside of Xuanwumen in Beijing. There is a house of Ki Soo-you, the grandson of Ji Yun and many Hong Seok-mo's acquaintances lived there.

There were some people who enjoyed getting along with Joseon people and Liulichang Culture Street was a good place for Joseon diplomats and Chinese scholars to meet.

---

\* DongGuk Univ, academy of Buddhism, researcher / sky200106@hanmail.net

【Key words】 Hong Seok-mo(洪錫謨), Beijing Liulichang Culture Street(北京 琉璃廠),  
Ki Soo-you(紀樹蕤), Dae Ga-hoe(戴嘉會), Woong Ang-byeok(熊昂碧),  
Jang Wol(蔣鉞), Jo Gang(曹江), Jin Ok-gwang(陳瑾光), Jin Yeon-eun  
(陳延恩)

투고일 : 5월 25일, 심사완료일 : 6월 12일, 게재확정일 : 6월 12일